능률(김성곤)

2. The power of Creativity

1. 과거분사

- 1)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여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한다.
- 2)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나 완료이면 과거분사(p.p.)를 쓴다.

고1

- 3)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 앞에 오고, 분사가 목적어, 보어, 부사(구) 등을 이끌면 명사 뒤에 온다.
- 4) '~을 …하게 만들다'는 의미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의 경우 과거분사 형태로 쓴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 I liked the earrings made from used bottle capes the most, so I bought a pair!
 - √ made ~the most는 명사 the earrings를 수식한다. made앞에 which were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석> 나는 중고 병마개로 만든 귀걸이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한 쌍을 구입했다.

You will be able to find items designed in an eco-friendly way!

√ designed 이하는 명사 items를 수식한다. designed앞에 which are/were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석> 당신은 친환경적으로 디자인되어진 물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주격관계대명사

- 1)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대명사'역할을 하며 앞의 명사(선행사)를 수식한다.
- 2)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 주어일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쓴다.
- 3)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who,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 which, 선행사에 관계없이 that을 쓴다.
- 4) [명사(선행사) + 주격관계대명사 + 동사]의 형태로 쓰인다.
- 5) 주격관계대명사 뒤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 한다.
- 6) who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누구'를 뜻하는 의문사 who이다.

[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

A person who never made a mistake never tired anything new.

✓ who~mistake가 선행사 a person을 수식한다.

<해석>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새로운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An idea that is not dangerous is unworthy of being called an idea at all.

√ that~dangerous는 선행사 an idea를 수식한다. 주격관계대명사 이하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 한다.

<해석> 위험하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라고 불릴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01-12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It still requires large amounts of energy 1)to purify 2)used resources and 3)convert them into new products.

1) to부정사 부사적용법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으로 사용 될 경우, in oder to, so as to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과거분사

used는 '사용된'이란 의미로 resource(자원)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이다.

3) 병렬연결

convert는 purify와 병렬로 연결되었다.

〈해석〉 그것은 여전히 사용된 자원을 정화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This new approach 1) is becoming more popular 2) since it is 3)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recycling.

1) become + 형용사

현재진행형으로 쓰인 문장의 동사 become은 보어로 형용사를 취한다.

2) 접속사 since

since는 '~이래로'라는 뜻과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면, as또는 because와 바꾸어 쓸 수 있다.

3) 비교급 강조

even은 more friendly라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 still, even, far, a lot을 비교급 앞에 쓴다.

《해석》이 새로운 접근법은 재활용보다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Through upcycling, a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1)be transformed into 2)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3)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1) 수동태

수동태는 be+p.p.의 형태로 주어가 어떠한 동작이 되어질 때 사용된다. 여기서는 겉보기에 쓸모없는 물체가 변형 되어지는 것이므로 수동을 쓰는 것이 옳다.

2) something + 형용사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앞으로 후치수식 한다.

3)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 문장에서 that이하는 선행사 something을 수식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 하기 때문에 단수동사 is를 쓰는 것이 옳다.

〈해석〉업사이클링을 통해, 겉보기에 쓸모없는 물건이 일상생활에 유용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

미리보는 빈출문장

1)A shocking number of tires 2)get thrown away there every year, and they ar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3)since they cannot decompose or be recycled.

1) a number of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이 때 a number of는 a lot of 또는 lots of와 바꾸어 쓸 수 있다. 'the number of'는 '~의 수'라는 뜻으로 주어자리에 위치하면 단수취급한다.

2) 수동태

많은 양의 타이어가 버려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오는 것이 옳다.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be+p.p.의 형태이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 be동사 대신 get동사를 쓰기도 한다.

3) 접속사 since

이 문장에서 접속사 since는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다. since절 이하 decompose는 '분해되다'는 자동사의 의미로 쓰였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태로 쓰지 않는다.

〈해석〉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타이어가 버려지고 있고, 그들은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문제이다.

This park proves 1)that 2)it's possible to preserve the heritage of a place 3)as well as the environment.

1) 접속사 that

that은 동사 prove이하 목적어자리에 명사절을 이끈다.

2) 가주어 it

to부정사 주어 처럼 문장에 주어가 길 경우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는 문장의 맨 끝으로 뺀다

3) A as well as B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 라는 뜻으로 'Not only B but also A'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eritage of a place

《해석》이 공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By giving old products more value, we can lessen the amount of waste in a way 2)that is 3)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1) By + -ing

전치사 by + -ing는 '~함으로써'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주격 관계대명사 that

that이하는 선행사 a way를 수식한다.

주격 관계대명사 이하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 하므로 단수동사 is를 쓴다.

3) 비교급 강조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비교급 앞에 even, still, a lot, fat, much 등을 쓴다.

《해석》 오래 된 상품을 더 가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재활용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